

## 1 개요

구좌읍 평대리 남쪽에 있는 가릿뱅디와 관련된 전설이다.

## 2 내용

옛날 구좌읍 평대리 남쪽에 가릿뱅디라는 곳에서 장서방이 움막을 짓고 마소를 키우고 있었다. 날이 갈수록 마소의 수가 줄어드는 듯해서, 그 이유를 캐기 위해 밤을 새며 지켜 보기로 했다. 어느 날 밤 가릿뱅디 논밭 한 가운데서 하얀 개 한 마리가 소 한 마리를 물고 사라졌다.

장서방은 동네 사냥꾼에게 이 개를 잡아주도록 부탁했다. 사냥꾼은 장서방과 함께 밤을 새다가, 하얀 개 한 마리가 마소에게 달려들자 사냥꾼이 활을 당겼다. 화살이 빗나가자, 뒤를 쫓았다. 개는 구좌읍 김녕리로 도망가서 입산봉으로 숨어버렸다. 이후 가릿뱅디의 물이 말라서 벌판이 되어 버렸다.

그런데 입산봉에서는 난데없이 물이 솟아났다. 그 물이 고여 논밭이 되었다. 그 개는 물귀신이었다. 후세 사람들은 말라버린 벌판이라 해서 가물뱅디라 했는데, 나중에 소리가 변해서 가릿뱅디라 하였다.

## 3 특징

물이 말라버려서 가물뱅디라 하다가 소리가 변해서 가릿뱅디로 불렸다는 이야기이다. 물귀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.

## 4 핵심어

평대리, 가릿뱅디, 장서방, 움막, 논밭, 마소, 하얀 개, 가물뱅디, 입산봉, 김녕리, 물귀신.

## 5 원전 서지사항

가릿뱅디(제주도, 《제주도전설지》, 1985)

## 6 관련 자료

가릿뱅디(현용준, 《제주도 전설》, 서문당, 1976)